

의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평화육교재가설 사업현장방문

의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에서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했다.

지난 1975년 가설된 평화육교는 2011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된 교량으로, 의산시와 지역 시의원 등이 협력해 국토교통부에 재가설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존교랑철거에 따른 철거현장과 대체우회도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사업진행 상황, 사업현장 내 위험요인, 주민불편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민관 예산 등의 시유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폭염 피해 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군산시(시장 김임준)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집단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방지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풍기 신규설치 및 교체가 필요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20여 대의 환풍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양계농가 및 축산농가에는 제빙기 및 안개분무기 설치 지원, 소에 대한 필수 미네랄 투여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채금석 농정과장은 “시에서도 폭염예방 메시지 수시 전파, 축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정부부처 방문 예산확보 '구슬땀'

군산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 청년창업 자립급여 지원사업 등 주요 건의사업
반드시 반영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 연차별 국비 반영 요청 나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9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를 방문했다.

24일 강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찾아 주요 현안사업과 이번 부처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예산실장을 비롯한 해당부서와 소속 심의관을 만나 주요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설득과 지원을 요청했다.

신입건설위원회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민관 예산 등의 시유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산=우병희 기자

이번 기획재정부 방문은 지난 5월 부처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돼 심의중인 상황에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차별 국비 반영을 요청하기 위한 방문이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군산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50억 원), 청년창업 자립급여 지원사업(28억 원), 종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25억 원),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20억 원), 청년농

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1.5억 원) 등이다.

다음으로 강임준 시장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어청도 항로 노후여객선 폐쇄선 대체 건조,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심의가 끝나는 9월 초까지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으로 주요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9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를 방문했다.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블록체인을 앞두고 관내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행정력 집중

지역화폐 발행 앞두고 금융기관 ·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225만장 200억원 발행 9월부터 시중에 유통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지역 내에서 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블록체인을 앞두고 24일 관내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매대행 협약에는 군산시와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지부장 김규창), 군산월영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박운곤), 동군산새마을금고(이사장 김진기), 군산시상인연합회(회장 복태만)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와 지역 협력 33개소를 비롯한 신협 16개소, 새마을금고 14개소 등 총 67개소에서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가 이뤄지며 군산시상인회에서는 환전대행을 맡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증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

의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회

의산시가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24일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칠웅 의산시지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계획수립 TF위원, 복지분야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원광대학 박은아 책임연구원(복지·보건학부 교수)의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로 진행됐다.

이번 4기 계획(안)은 복지영역(고용, 교육 등) 확대와 정부의 보편사업을 보완할 자체사업 중심으로 수립됐다.

시민의 욕구조사와 의견수렴 사항, 민선 7기 시정방향을 토대로 크게 ▲

인전하고 꾸준한 녹색문화도시 조성
▲ 건강하고 안정된 시민생활보장 등 4개 전략에 50여 개 사업을 설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동부 북부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 어르신용품 대여 서비스 운영 ▲ 장애인 출퇴근 및 저상버스 확대 운영과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등이다.

이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심보행거리 조성, 미세먼지 민감 계층 활동 공간 개선과 안정된 시민생활 보장을 위해 공의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됐다.

중간보고 후에는 내실있고 지역특색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정책적 검토를 통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산=김정훈 기자

의산소방서, 구급대원 4명 하트세이버 수상

의산소방서(서장 김봉준)는 최근 2018년 상반기 하트세이버(Heart Saver) 수여식을 갖고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들은 지난 1월 노인복지지원 어르신 코로나 아파는 신고로 출동,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전기충격을 주는 등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현장에서 자가회복이 돌아오게 구급활동을 펼쳤다.

처치를 담당했던 최나슬 구급대원은 “구급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떨어뜨려 기쁘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봉준 의산소방서장은 “심장을 살린 사람에게 수여되는 하트세이버는 소방관들이 있어서는 훈장과도 같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피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